



미 증시, 7월 FOMC 결과 소화하며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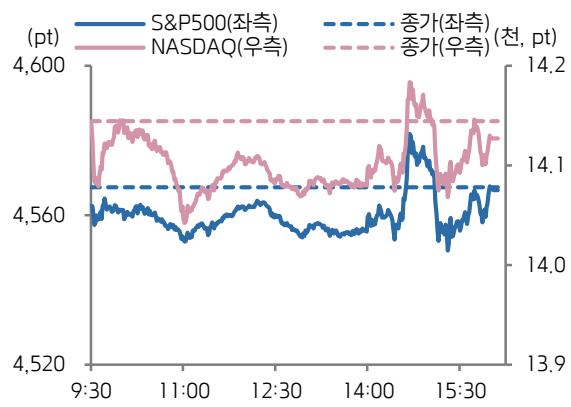
26 일(수)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2년물 국채 금리가 4.9%대까지 급등했으나, 장후반에 4.8%대까지 하락, 달러 하락 등 변동성 확대되며 지수는 혼조세. (다우 +0.23%, S&P500 -0.02%, 나스닥 -0.12%)

연준은 7월 FOMC에서 예상대로 25bp의 금리인상을 단행, 한번의 동결 이후 긴축을 재개한 것으로 기준금리 범위는 5.25~5.50%에도 달. 정책 결정문에서 "경제 활동이 조금씩(at a moderate pace) 확장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지난 회의에서는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at a modest pace) 확장되고 있다"고 언급한 데에서 조금씩(moderate)로 표현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경기 판단을 상향 조정했다고 해석. 파월 의장은 9월 FOMC 까지 두개의 고용보고서와 물가 등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는 것도 동결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동결과 인상 가능성을 모두 열어둠. 또한 "2025년에나 물가상승률 2%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또한 경기에 대해서 "Fed 내 이코노미스트들도 더 이상 경기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발언.

EU 집행위는 벨기에 브뤼셀 27개국 농업장관회의에서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전량을 회원국 육로인 '연대회랑'을 통해 우회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연대회랑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흑해 대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EU 회원국의 육로를 거쳐 발트해 항구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우회로. IMF는 러시아의 흑해곡물 협정 파기로 곡물 값이 최대 15% 오를 수 있다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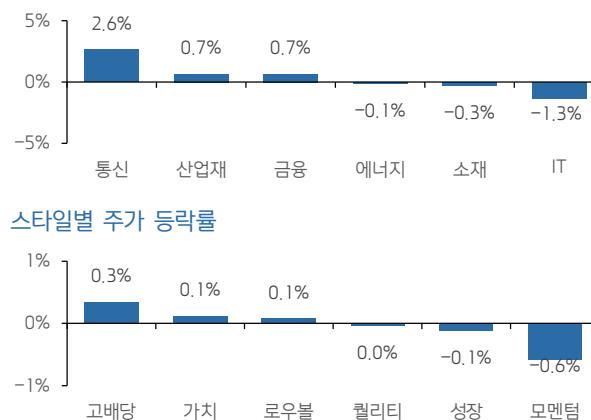
업종별로 통신(+2.6%), 산업재(+0.7%), 금융(+0.7%) 업종 강세, IT(-1.3%), 소재(-0.3%), 에너지(-0.1%) 업종 약세 장전 실적 발표한 MS(-3.76%)는 예상치를 웃돈 실적 발표에도 생성 AI로 인한 강력한 수요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 지출이 수익을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에 다음 분기 매출 예상치가 시장의 기대를 밀돌면서 주가는 약세. 알파벳(5.78%)은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와 광고시장의 회복으로 매출이 YOY 3.3% 증가, 전 분기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강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92.36	-1.67%	USD/KRW	1,274.36	-0.07%
코스피 200	340.56	-1.26%	달러 지수	101.01	-0.33%
코스닥	900.63	-4.18%	EUR/USD	1.11	+0.01%
코스닥 150	1,509.83	-3.88%	USD/CNH	7.15	-0.03%
S&P500	4,566.75	-0.02%	USD/JPY	140.35	+0.08%
NASDAQ	14,127.28	-0.12%	채권시장		
다우	35,520.12	+0.23%	국고채 3년	3.622	-1.7bp
VIX	13.19	-4.83%	국고채 10년	3.655	-2.5bp
러셀 2000	1,980.36	+0.72%	미국 국채 2년	4.852	-2.3bp
필라. 반도체	3,699.37	-1.49%	미국 국채 10년	3.867	-1.8bp
다우 운송	16,621.13	+2.73%	미국 국채 30년	3.934	+0.6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46.15	-1.03%	WTI	78.9	+0.15%
MSCI 전세계 지수	701.98	-0.02%	브렌트유	82.92	-0.86%
MSCI DM 지수	3,044.70	-0.02%	금	2012.4	+0.14%
MSCI EM 지수	1,031.88	-0.04%	은	24.83	+0.59%
MSCI 한국 ETF	67.53	-0.54%	구리	389.05	-0.2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4%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5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69.3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세계은행의 전세계 성장을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한 경기민감주 강세 여부
2. 애플 MR 기기 출시가 국내 관련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
3.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 수출입 지표 결과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7월 FOMC에서 찾은 증시 시사점)

- a) 성명서상 지난 6 월 FOMC 성명서와 텍스트나 톤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던 무난했던, 혹은 비둘기파적인 인상의 성격이 짙었던 것으로 판단(FOMC 이후 증시 혼조세, 달러 하락, 금리 하락)
- b) 9 월 말 FOMC 까지 2 번의 고용지표와 CPI 지표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 9 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
- c) 9 월 인상을 하던, 동결을 하던 간에 8 주의 시간은 모든 것을 빨리 반영하고 소화하려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답답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8 월 말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스탠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음.
- d) 파월 의장이 2025 년에도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를 자극. 7 월 CPI(8 월 10 일 발표)는 3%대 초중반(3.3~3.4%)을 기록하면서 6 월(3.0%)에 비해 상승하면서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초래할 소지는 다분하지만, 방향성이 레벨 다운되고 있다는 전제는 훼손되지 않을 것.
- e) 증시 변곡점이 되지는 못했던 7 월 FOMC 가 종료된 가운데, 시장은 2 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하게 될 것. 무엇보다 국내 증시에서는 FOMO 현상이 발생했던 2 차전지 관련 그룹주들이 현재 주가와 수급이 극심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증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

(7월 FOMC 주요 내용 및 평가)

7 월 FOMC 에서 연준은 25bp 금리인상을 위원들 만장일치로 단행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서도 선반영해왔던 재료였기에 금리인상 결과 자체는 재료 소멸 인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 관건은 시장의 컨센서스로 형성된 “9 월 동결 및 내년 3 월 인하”에서 “연내 추가 인상” 쪽으로 변화가 생길지 여부였으나, CME Fed Watch 나 채권 시장의 금리 움직임을 보면 아직까지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생기지 않은 상황. 성명서 역시 6 월 성명서에서 거의 변화를 주지 않는 전망과 의견이 담겨있다는 점도 7 월 FOMC 를 무난한 결과로 끝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요인.

물론 살짝 부담스러운 매파적인 색채들이 곳곳에서 묻어 나온 측면도 존재. 가령, 시장의 기대와 달리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후퇴시킨 것은 장중 일시적인 주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음. 하지만 향후 추가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 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6 월 CPI 둔화(헤드라인 3.0% YoY vs 5 월 4.0%) 소식이 반길 만한 일이지만, 연준의 2% 물가 목표에 인플레이션이 도달하기 까지는 갈 길이 멀다(+“2025 년에도 2% 도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도 눈에 띠는 부분. 이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 민감도를 높이는 요소였으며, 향후 1~2 개월 동안 CPI 가 재차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CPI 이벤트 때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다만, 장기 인플레이션은 잘 고정되어 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더불어, 9 월 이후 코어 CPI 역기저 효과 소멸 등을 감안 시 인플레이션 레벨 다운 추세는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

(국내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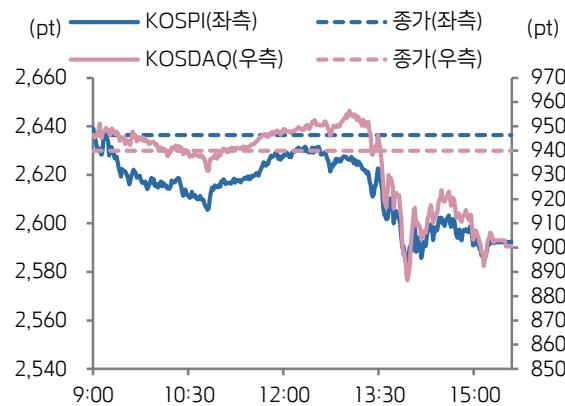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7 월 FOMC 경계심리 속 에코프로, 포스코, LS 등 2 차전지 관련 그룹주들이 오후 들어 장중 급등락 사태를 연출함에 따라 전체 시장의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되면서 하락 마감(코스피 -1.7%, 코스닥 -4.2%).

금일에는 무난한 결과로 종료한 7 월 FOMC 결과를 중립이상의 재료로 소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메타(시간외 7%대 상승)의 호실적으로 인한 주가 상승, 삼성전자의 2 분기 실적, 2 차전지 FOMO 현상 지속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전망.

최근 수거래일간 국내 증시에서는 에코프로, 포스코, LS 그룹주와 같이 2 차전지 관련 테마가 엮여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 수급 쓸림현상이 진행되면서 이들은 단기 주가 폭등세를 구가해왔음. 하지만 전일에는 오후 들어 해당 종목군들의 주가와 수급 변동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끝내 투매 현상과 주가 폭락이 출현해버린 설정. 이로 인해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거래대금이 62.2 조원으로 '21년 1월 11일(64.8 조원) 이후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자들간 손바뀜이 극심하게 진행됐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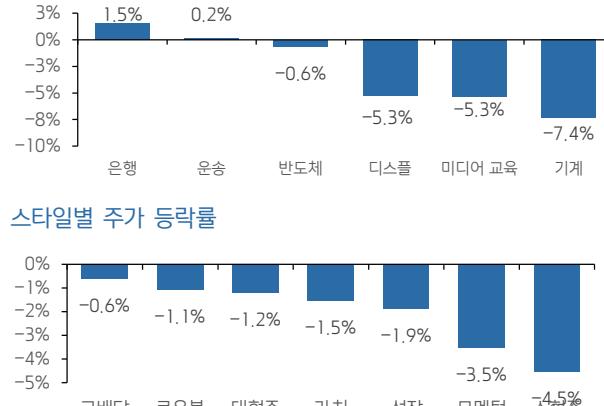
금일에도 국내 증시에서는 FOMC 결과와 무관하게, 이 같은 FOMO 현상이 유발한 2 차전지주들의 변동성 및 후유증(추가 투매, 신용 반대매매)이 출현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물론 전일 단기간에 주가가 폭락한 만큼, 기술적인 반등을 노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재차 FOMO 현상을 만들어낼 수는 있음.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그간 수급이 소외됐던 반도체, 바이오, 혹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대한 비중 확대 기회로 삼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 될 것.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산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